

Md.g.2

자막방송 실시 1주년 기념 세미나

☞ 일시 : 2000년 3월 28일(화) 14:00

☞ 장소 : 방송회관 기자회견장(3층)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농아인협회

자막방송 실시 1주년 기념 세미나

- 일 시 : 2000년 3월 28일(화) 14:00
- 장 소 : 방송회관 기자회견장(3층)
- 공동주최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농아인협회
- 후 원 :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방송위원회
- 협 찬 : (주)에스이이, 농아사회정보원

인 사 말



안 세 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장
한국농아인협회장

안녕하십니까?

TV 속의 언어들을 한글자막을 통해 접하는 벽찬 감동을 맛보았던 것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20여년 동안 세상을 향해 수화통역을 요구했던 갈망은 수화통역센터를 통해 전문자격시험을 치른 수화통역사에 의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자막방송을 요구했던 절규는 지난 해 2월12일 이루어졌습니다.

한글을 통해 TV의 소리를 읽을 수 있게 되었던 그 날은 청각장애인들이 비로소 이 나라의 국민이 된 듯한 '국민권 회복의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수화라는 언어로 세상을 알고 세상의 사람들과 대화하고자 했던 20세기를 1년여 남겨놓고 정보화 시대, 디지털문명이라는 21세기를 앞두고 들떠있는 세상사람들 속에서 우리 농아인들은 참으로 많은 초조함으로 다가오는 세계에 대한 설레임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송법에서도 이제 우리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을 담으려하고 있으며, 다방면의 활동을 통하여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모든 의견이 지난 1년을 통해 천년을 기쁨지게 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들이 TV를 통해서 디지털문명을 통해서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뜻 깊은 자리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함께 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좋은 의견 나누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과 장애인사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3월 2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농아인협회장

안 세 준

격려사



김 정 기
방송위원회 위원장

먼저 자막 실시 1주년을 축하드리며 1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작년 자막방송의 실시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작년에 자막방송이 시작되고 새 방송법에 자막방송의 실시가 명문화되기까지 특히 장애인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사회복지측면에서 장애인 방송접근권 문제는 사회인식 변화와 방송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 및 접근권은 기본적인 사회 접근권과 관련된 향으로 기본권적 의미와 함께 생활권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보의 생산과 획득 그리고 분배과정을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이해할 때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확보는 현대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방송 매체의 시청에 물리적 제약이 있는 청각장애자들에 있어서 방송접근권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장애인들, 특히 청각장애인들은 여러 방송매체에서 소외되어 문화의 혜택과 복지 혜택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저하, 지적 개발에까지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새방송법은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 정신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방송법에 보도, 재난 방송과 선거방송, 행사방송등은 자막방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락이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까지도 자막방송이 확대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은 공공방송 등 대다수 방송이 자막방송중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도 2002년 이후 100%자막방송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공영방송만이라도 하루 속히 100%자막방송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이나 수화방송은 일반인과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자막방송의 확대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방송서비스가 제공되는 보편적 정보접근이 실현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보편적 방송서비스의 실제적 구현과 관련하여 중요한 노력중의 하나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 자막방송의 실시입니다.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정보유통과정에서 소외됨이 없이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서비스의 구현일 것입니다. 시청자 정보 복지구현과 보편적 서비스의 구현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 중계 서비스를 의무화함으로써 단순히 균등한 기회 제공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용과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차원까지 장애인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방송환경에서 연령이나 성적 차별없이 사회, 경제적 지위, 신체적 불편함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어느 누구라도 새로운 매체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는 장애인의 시청 지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방송사의 수화통역과 자막방송을 늘려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특히 TV자막 내장장치의 의무화, 수화통역과 자막방송의 비율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방송접근권을 보장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I. 주제발표

○ 좌 장

박인기(충현교회 농아부 목사, 한국농아인협회 이사)

○ 김종인(나사렛대학교재활복지대학원장)

- 장애인복지와 TV 자막방송 1년

○ 양재우(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고속망연구부)

-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방송 기술

○ 김철환(한국농아인협회 기획홍보과장)

- TV자막방송의 시청 현황과 과제

II. 토론

III. 종합토의

IV. 설 문 지

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000

2001

2002

장애인 복지와 TV 자막방송 1년

김 종 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

장애인복지와 TV 자막방송 1년

김종인 교수(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

I. 서언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비전(TV) 자막방송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어섰다. 1999년 설 연휴인 2월 5일·6일 KBS가 국내 방송사상 처음으로 TV 스포츠 중계에 자막방송을 실시한 것을 필두로 MBC, SBS 등 국내 메이저 3개 TV 자막방송국이 전 방송의 10% 정도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비록 지난 1년간은 시험방송이라는 타이틀로 자막을 넣었지만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시대가 우리 나라에서도 개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TV 자막방송은 지난해 12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2000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보장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사실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장애(communication disorder)의 대표적인 장애로써 정보접근권과 참여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을 때 교육의 기회는 물론 재활과 사회통합에도 소외될 수 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다. 더구나 청각장애인은 TV에 글씨 자막이나 수화통역자막이 없을 경우 정보와 문화에 단절되어 결국 우리 사회에 이방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TV 자막방송 시행 1년이 장애인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향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TV 자막방송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논하여 보고자 한다.

II. TV 자막방송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

청각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복지의 원칙이나 재활체계,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청각장애인 복지는 다른 어느 장애영역이나 비장애영역과는 다른 언어적 문화의 상이점으로 인하여 특수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TV 자막방송 1년은 청각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1. 장애인 복지의 기본 원칙

장애인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더불어 함께 살며 그들의 능력 발휘를 촉진하여 가치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데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존엄의 동등성

역사적으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은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UN의 인권선언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어떤 상태하에서도 장애인은 존중되어야 할 자유권과 사회권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제 2항에서 “정신이나 신체 또는 감각손상의 결과로 장애를 입은 사람도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26항에서는 “장애인을 평등한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의무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장애인을 특별 취급하지 않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동등한 인간의 원점을 밝힌 것이다.

2) 장애의 개별성

같은 장애원인을 가졌다고 하여도 개인의 개성이나 상황, 삶의 목표가 다른 개인에게는 결코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신체장애인, 정신지체인등과 같은 장애인은 성질이 각기 다른 장애에 부딪히게 되며 또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에는 시각적인 보조장치가 개별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니까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장애 의미 부여나 문제 해결 수단에는 고도의 개별성이 요구된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과정에 있어서도 장애가 갖는 개별적 의미를 인식하고 그에게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 사회 자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같은 장애인이라고 하여 일률적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3) 발달 보장성

심신 기능에 손상을 입어 그 부분에 기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부분의 보상 기능에 의하여 생존에 필요한 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 장애인의 개성적 발달과 잔존능력의 성장 가능성을 찾아 그 성장에 기대를 걸고 개성이나 특성을 전인적으로 파악하여 발달시켜야 한다. 모든 개체는 변화하고 발달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믿고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발달 보장이다.

4) 욕구의 대등성

흰 지팡이,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지체장애인의 휠체어 등은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격과는 별개의 것으로 부자유 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 사회인들은 보통 인격의 속성 부분과 다른 장애에 주목하지만 그것보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욕구의 공통성을 주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진학, 취업, 결혼, 주택 등과 같은 공통적인 욕구를

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다른 수단으로 달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이 추구하는 복지이다. 공통적인 욕구를 장애인은 어떤 수단으로 추구하여 가는 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불어 같이 사는 우리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5) 사회참가와 기회균등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이 진행되어 장애인과 일반인이 혼연일체의 사회를 이룩하였을 때 이것을 사회통합이라고 한다. 자기존엄과 능력을 자각한 장애인들은 오랫동안의 차별취급을 거부하고 사회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기회균등이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기회가 장애인에게도 개방되어야 하며 일반인과 다른 생활이나 시설에 수용 격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 기회균등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사회 관계를 장애인에게도 개방하여 가는 것이 장애인복지이다. 장애인의 생활과 일반인의 생활사이에 벽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균등이 실현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정상화(Normalization)라고 한다.

2. 청각장애인 복지의 특수성

광의적인 측면에서의 복지는 복지대상자의 욕구(Needs)를 해결(Solution)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교육이나 주택, 교통 등 인간이 살아가는 전 영역에 걸쳐 질 높은 삶(Quality of life)과 인간답게 사는 삶을 영위하도록 해주는 것이 복지라 하겠다. 협의적인 측면에서의 복지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으로도 불리워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고 그것이 복지대상자에게 적당할 때를 가리킬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우선 불편이나 부자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특수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표-5) 농아인의 불편·부자유

기본적인 부자유	실제상 불편의 예
· 소리를 들을 수 없으므로 시각, 냄새, 촉각 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로의 의사전달에 문제가 있다.	· 자기 의지의 전달에 곤란, 특히 선천성의 질환자는 언어가 전혀 소통되지 않은 자가 많으므로 곤란도가 높다. · TV 등 시청에 있어서 문자나 수화자막이 없을 경우 이해도가 극히 저조하다.
· 경보기, 신호, 부자 등은 이용할 수 없다.	· 재해의 전달방법이 어렵다. 특히 수면중의 재해는 알릴 수가 없어 곤란하다. · 전화 등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 정보의 접근과 교류가 어렵다.
· 문장의 이해도가 낮은 자가 많다.	· 난해한 문장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청각장애인의 불편이나 부자유를 해결하고 복지적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 문화에 대한 특수성의 이해와 장애장벽제거운동(Barrier free movement)이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한다. 「태도의 장벽」, 「의사소통의 장벽」, 「건축물의 장벽」 제거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건축문제는 그 비용이 다른 장애인 시설에 비해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시설이 공공건물 또는 장애인 시설의 건물에서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초인종을 누르면 소리나는 벨 대신 점멸등을 설치한다든지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문위에 불이 들어오게 한다든지(비행기나 기차의 화장실 같이) 집회에서의 수화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자막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일, 밖에 메모지를 넣을 수 있는 조그만 틈을 제공해 준다든지(호텔문 중에는 종이 한 장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음)한다면 소리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과 긴급의사 소통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한 예로 호텔방에 청각장애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 찾아온 손님은 약속시간 외에는 만날 방법이 없으며 열쇠를 가지고 방문을 열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 “호텔은 청각장애인인 고객을 위해서 깜박등(Flash light : 문 두드리는 소리나 초인종 소리를 들을 수 없으므로 설치함)을 객실내에 설치해 놓아야 하며 TV에 자막기를 비치해 두어야 하고 또 TDD(타자 전화통하기)를 비치해서 청각장애인이 필요하면 통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의 완벽한 제공은 청각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현대사회에서 정보문제는 이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청각장애인은 보편적인 정보 매체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정책의 변화

현대 사회는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가 지배하며 흔히들 21세기 우리 사회를 지식정보사회 이외에도 첨단정보사회, 인터넷 사회, 고도산업사회 등 그 명칭도 다양하게 붙여지고 있다. 어떤 사회로 명명되던지 간에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의 장벽(Communication Barrier)을 제거해 주지 않는다면 20세기까지의 산업사회에서의 장벽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더구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양질의 지식정보가 있어도 그

것에 접근을 봉쇄 당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에 있어서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권리로써 완전 보장하는 이념과 철학 그리고 운동이 일어나야만이 명실공히 청각장애인도 우리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의사소통장벽을 제거하고 그것을 보장해주는 일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수화(手話)와 구화(口話)에 대한 언어문화적 이해와 지원은 물론 자막방송·문자방송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보 접근을 권리로써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청각장애인을 시혜적 「클라이언트」가 아닌 재활·복지주권이 인정되는 「소비자」로 자리매김하는 정책개혁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청각장애인 중심 즉 청각장애인의 재활·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청각장애인 재활·복지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한 참여와 평등’은 국제장애인의 해의 주제였다. 장애인 복지법 제 3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에 상당하는 처우를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다.

청각·언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TV 자막방송

자막방송은 원방송을 내보내면서 동시에 화면 하단 상단에 자막을 내보내는 방송을 말하는 것으로 방송의 내용 곧 언어나 노래 또는 상황을 동시에 자막으로 처리하여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송이다.

자막방송은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개방 자막방송은 자막이 계속적으로 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화면에 방송되는 것을 말하며, 폐쇄 자막방송은 디코더의 작동을 통하여 자막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자막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송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개방 자막 방송이 1970년 최초로 실시되었으나 많은 일반 시청자들이 시각적 주위 분산을 불평하였다. 이에 기술적 연구를 거듭한 결과 국립 자막 연구소는 필요 공간, 장비용원을 확보하여 1980년 3월 최초로 폐쇄 자막방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0년 미국장애인법(ADA)을 제정·시행하면서 텔레비전 자막 표시장치법이 제정되어 1993년 7월 1일부터는 13인치 이상의 모든 텔레비전에 폐쇄 자막 디코더를 내장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삽입하도록 미리 확정 발표하고 법을 집행하였다. 약 3년이라는 준비기간을 거쳐 청각장애

인 자막방송시대를 연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청각장애인에게 알 권리의 차별을 철폐하는 조치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정보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든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최근 미국의 고어 위원회의 “디지털 방송의 미래에 관한 권고안”에서는 또한 디지털 프로그래밍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즉, 방송업자들은 디지털 캡션 기술의 이점을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최대한의 선택과 품질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공공 서비스 발표, 공공 프로그램 편성, 정치 프로그램에 대한 캡션을 점차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본 또한 현재 30%에서 2007년까지는 모든 방송을 100% 자막처리 한다는 목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III. 우리 나라 TV 자막방송이 장애인 복지에 끼치는 영향

1. TV 자막방송의 실태

우리 나라 TV 자막방송은 1999년 2월 처음 실시되어 지금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방송접근 및 정보접근의 기회 확대 등 소위 복지방송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0년 3월 현재 자막방송의 실시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이나 자막방송 시간이 아직 매우 부족하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막방송 프로그램 제공 시간을 보면 KBS는 주당 1천 850분 정도를, MBC의 경우 주당 29시간 45분 정도로 그 프로그램을 보면 KBS는 뉴스, 일일연속극, 일요스페셜, 환경스페셜, 역사스페셜, 명화극장,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총 17개의 프로그램이, MBC는 주말연속극, 출발 비디오 여행, 미니시리즈, PD 수첩, 시사매거진 2580,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주말의 명화 등 총 16개의 프로그램이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KBS는 올 1월, MBC는 올 3월에 확대된 것으로 보면 서비스의 범위가 매우 협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BS의 경우는 현재 자막방송 프로그램은 SBS 저녁 뉴스 하나로 제공 시간이 주당 280분 정도에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EBS 교육방송은 금년 2월 28일부터 정식 시작되어 컴퓨터는 내친구, 신기한 동물 친구들, EBS세상보기, 육아일기, 효 도우미 007, 직업의 세계, 대학가 중계, 일요 시네마로 말 그대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것은 현재 전체 프로그램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자막방송 프로그램 제작·확대는 물론 시간 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TV 자막 수신기 제공 및 판매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한데 이것은 청각장애인의 바램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2. 장애인재활·복지의 개혁

1) 장애인재활·복지주권의 인정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제도나 지원이 다분히 자선적이거나 자혜적 입장에서 시행되어 왔고,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 대상자 정도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받고 옹호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위정자가 베풀어주는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써 받는 복지, 다시 말해 「컨슈머」(consumer)로써의 주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말은 장애인이 자신의 재활 및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TV 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도 주체가 되어 국가 정책은 물론 다양한 재활·복지사업과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시켜 나가는 길임을 제시했으며, 장애인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개체장애인도 한 인격체로 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것이다.

2) 청각장애인 문화 이해

실제로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문화사이에는 언어체계가 다르다는 것으로 인하여 커다란 차이가 있어 국제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존재하는 똑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화의 이해부족과 그 문화를 허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건청인과 언어체계가 달라 주로 시각언어인 수화(sign language)나 구화(oral language)를 사용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시각언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우리의 음성어는 물론이고 활자화된 문자의 해석 능력도 일반인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문자화된 모든 언어를 일반인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교육 정도에 맞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인 만큼 청각장애인이 문자를 일반인의 정도와 같이 다 이해할 것이라는 생각은 농아인 중에 비교적 상당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국한된 사정이다. 특히 현대는 정보화 시대라 하여 신속,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공유하는 것은 교육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만큼 청각장애인 특유의 언어문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권리를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면에서 TV 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의 또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정보전달체계의 다양성 인식

정보의 다양성만큼이나 이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 또한 그 대상과 정보의

특성에 따라 그 방법과 특징이 매우 다양하다.

현대가 정보사회이고 정보 없이는 어떤 일도 원활히 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전달체계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내의 경우 전에 비해 다행히 FAX나 컴퓨터 통신 등의 이용이 증대되어 장애인 특히 청각장애인의 이용이 용이해진 것은 사실이나, 가장 일반적이고 쉽게 이용되는 정보매체인 TV는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에게 그 역할이 미치지 못하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들이 수화삽입이나 자막을 가장 희망하는 프로그램 유형은 뉴스, 교육 프로그램, 외국영화 등의 순으로 주변의 정세 및 정보소식에 커다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TV 자막방송은 장애인 정보전달체계의 다양성과 통합성을 깨닫게 해주는 한 계기가 되었다.

3. 법 제도의 개정

지난해 한해 동안의 TV 자막방송은 장애인복지법과 방송법 등에 장애인 정보 접근과 참여를 나름대로 보장하는 법 제도의 개정과 시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가. 방송법

1) 장애인 권익 보호와 방송접근성

장애인과 관련된 방송에 대한 법적 규정으로는 우리 나라 방송법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방송위원회 심의규정, 방송발전 기금의 용도,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1999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조항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제 6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으로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 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제 34조 방송위원회 심의규정으로 제 2항 7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제 38조 방송발전기금의 용도로서, 8항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제 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 7항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송위원회는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그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동 방송법에서는 장애인이 방송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 것은 물론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방송접근권 보장은 물론 장애인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기금 사용도 규정하고 있어 향후 TV 자막방송의 프로그램 확대도 시청을 보장한다고 하겠다.

2) 장애인 시청자 지원

또한 지난 3월 13일 개정·공포된 방송법시행령 수신료 면제와 장애인시청지원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 44조(수신료의 면제)법 제 64조 단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면제한다.

9.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제 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법 제 69조 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화 또는 폐쇄자막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 7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사실 장애인 가정이 영세하다는 것은 1995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뿐만 아니라 최근 장애인실업자 가정조사보고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비장애인 가정의 4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통계이다. 따라서 수신료 면제와 장애인시청지원은 물론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동 법 52조의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조항으로써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적어도 이 조항은 방송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법의 재개정이 요망된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의 폐쇄자막방영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는 첫째, 방송법시행령 제 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방송, 둘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70조 내지 제 74, 제 82조 및 제 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 셋째,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넷째, 기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으로 명시하고 있어 방송법이 실질적 장애인 사회통합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방송프로그램의 참여권

현재 방송위원회에서 개정 추진 중인 방송법시행규칙(안) 제 14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제 52조제3호에서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정책 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 프로그램
2. 장애인 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 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법 제 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항에 의하면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시청자위원 추천단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꼭 들어가야 할 조항으로써 장애인의·욕구가 방송프로그램에 반영되는 프로그램의 참여권의 보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제 20조는 정보에의 접근에 관해 명시해놓고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사에 대하여 뉴스,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기타 교육, 집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넷째로, 이러한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 및 민간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청각장애인 복지방송 제공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자막방송의 의무화 프로그램 관련 규정 내용상의 자막방송 프로그램의 범위가 아직은 제한적이다.

IV. 결론 및 제언

TV 자막방송은 시작 그 자체만으로도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과 복지실현의 시금석이 된다는데 이의가 없겠지만 TV 자막방송확대로 명실공히 청각장애인 정보접근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스스로가 재활과 복지 나아가 사회통합의 주체로서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의 참여권 보장 또한 성취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요청하면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 참여권 보장과 정책적 장치 필요.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의 시작년도를 단순히 비교해 보면 미국이 1993년, 한

국이 1999년으로 6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실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사실 우리는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을 통해 방송접근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내용 등은 배제되고 있어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명실공히 청각장애인의 재활과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송접근권과 참여권 이 두 가지가 모두 보장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크로바스 로리가 펴낸 '텔레비전과 영화 드라마에서의 장애인'을 보면 미국에서는 텔레비전과 영화 등 대중예술매체를 통해 장애인의 인식개선은 물론 사회참여를 보편화시키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텔레비전과 장애인을 직접 출연시켜 장애인의 긍정적인 면과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통해 일반인식을 개선시키는 일이 병행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시청자위원회에 일정 수 청각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는 물론 실제 TV에도 장애인 출연을 상설화 하는 법·제도 및 정책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각장애인 교육기회와 알권리 회복.

TV 자막방송의 실시로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의 기회가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지속적인 복지방송서비스의 확대와 활용이 요구된다. 특히 EBS 교육방송의 경우 아직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막방송 프로그램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자막방송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확대, 나아가서 전 프로그램의 자막방송화를 통하여 청각장애의 학습 도구로 활용, 청각장애인의 교육 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미흡한 수화통역 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교육의 권리에 제한을 받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자막방송의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 학습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상으로도 청각장애인 관련 또는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청각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기회제공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장애인 정보접근에의 국가책임주의 구현.

향후 우리 사회는 지식 정보사회로써 커뮤니케이션 장벽을 가진 청각장애인이 가장 심각한 장애인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소위 '정보접근장애'가 가장 큰 장애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다양한 방안 강구는 국가사회의 책임이며 의무라 하겠다. 따라서 TV 자막방송, 문자방송, 수화자막방송 등 장애인 정보접근을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시행은 국가책임주의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청지원, 프로그램제작 및 공급, 접근권 및 참여권 보장 등 제면에 있어서 국가예산지원 등 국가책임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인(2000), 21C 지식정보 사회와 청각장애인, 청음회관 계간지, 청음칼럼.
김종인(2000), 농아인과 장애인 복지, 청각장애인복지회 특강.
김종인(2000), 장애인복지신문, 김종인의 재할탐구.
안일남(1999) 정보화 사회와 청각장애, 장애인복지신문.
Luterman D.M (1996), Counseling persons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and their families. pro-ED Texas U.S.A.
Klobas. L. E(1988), Disability Dram in Television and Film, MeFarland & Company, North Carolina U.S.A.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인터넷 자료.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방송 기술

양재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고속서비스연구부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방송 기술

양재우 2000. 3. 28.

양재우

jwyang@etri.re.kr

- 방송의 디지털화와 장애인
- 디지털방송과 자막방송
- 음성인식기술과 자동자막화 기술
 - 음성인식기술 소개
 - 방송뉴스 인식기술
 - 국내외 기술동향
-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방송기술 개발계획
- 맺음말

방송의 디지털화와 장애인

장점

- 미디어 변환 용이
- 음성/문자 변환, 문자/음성 변환 등

단점

- 멀티미디어 활용 -> 정보접근의 장벽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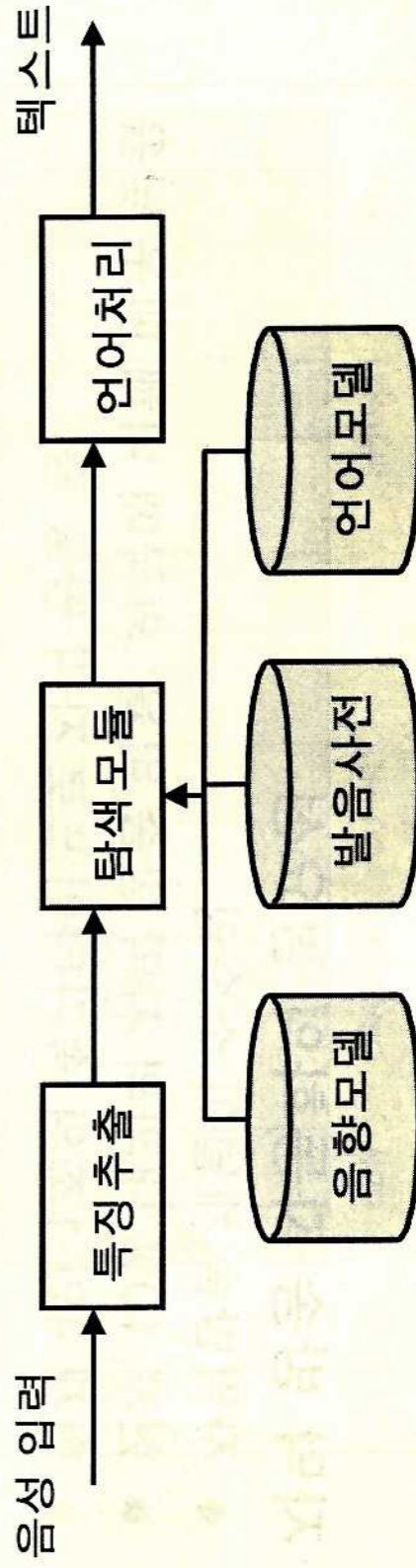
디지털 방송의 특징

- 방송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구성하고 이를 디지털방식으로 송수신함
- 고압화질, 다채널
- 비디오 MPEG-2 방식, 오디오 돌비 디지털 방식
- 다수의 데이터 채널 포함
- 서브타이틀, 자막이 별도 채널로 가능(CC 불필요)

음성인식기술과 자동자막화 기술

음성인식기술

- 음성을 컴퓨터가 인식하여 문자로 바꾸는 기술
- 음성 파형 -> 특징 추출 -> 음향 분석 -> 언어분석 -> 문자열



자막방송 자동화 연구동향

ET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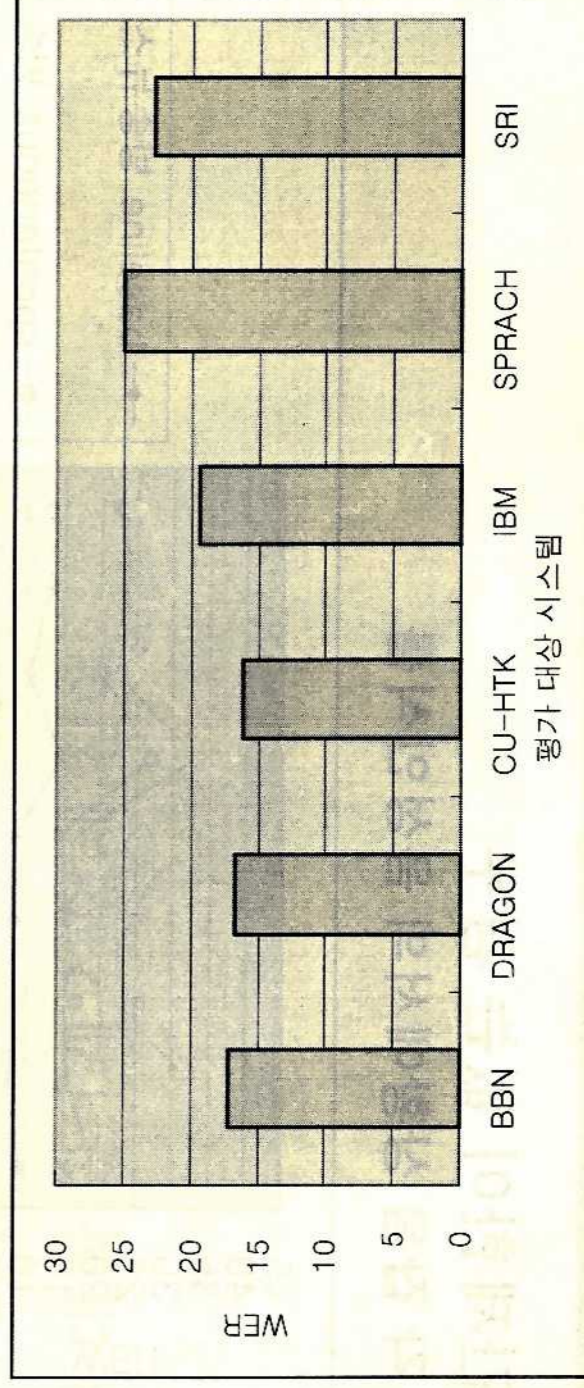
- 자막 방송 자동화의 필요성
 - 자막방송 채널이 소수임
 - 현재 10% 내외의 자막 방송 비율: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음
 - 현재 4인 1조의 속기타이프로 자막 방송 중
- 자막 방송 자동화 연구동향
 - 미국 국방성(DARPA)의 방송뉴스 인식 Workshop
 - 일본 NTT의 방송 자동 자막화 시스템
 - 국내: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방송기술 개발 (2000-2002)

ETRI Proprietary

미국방성 (DARPA)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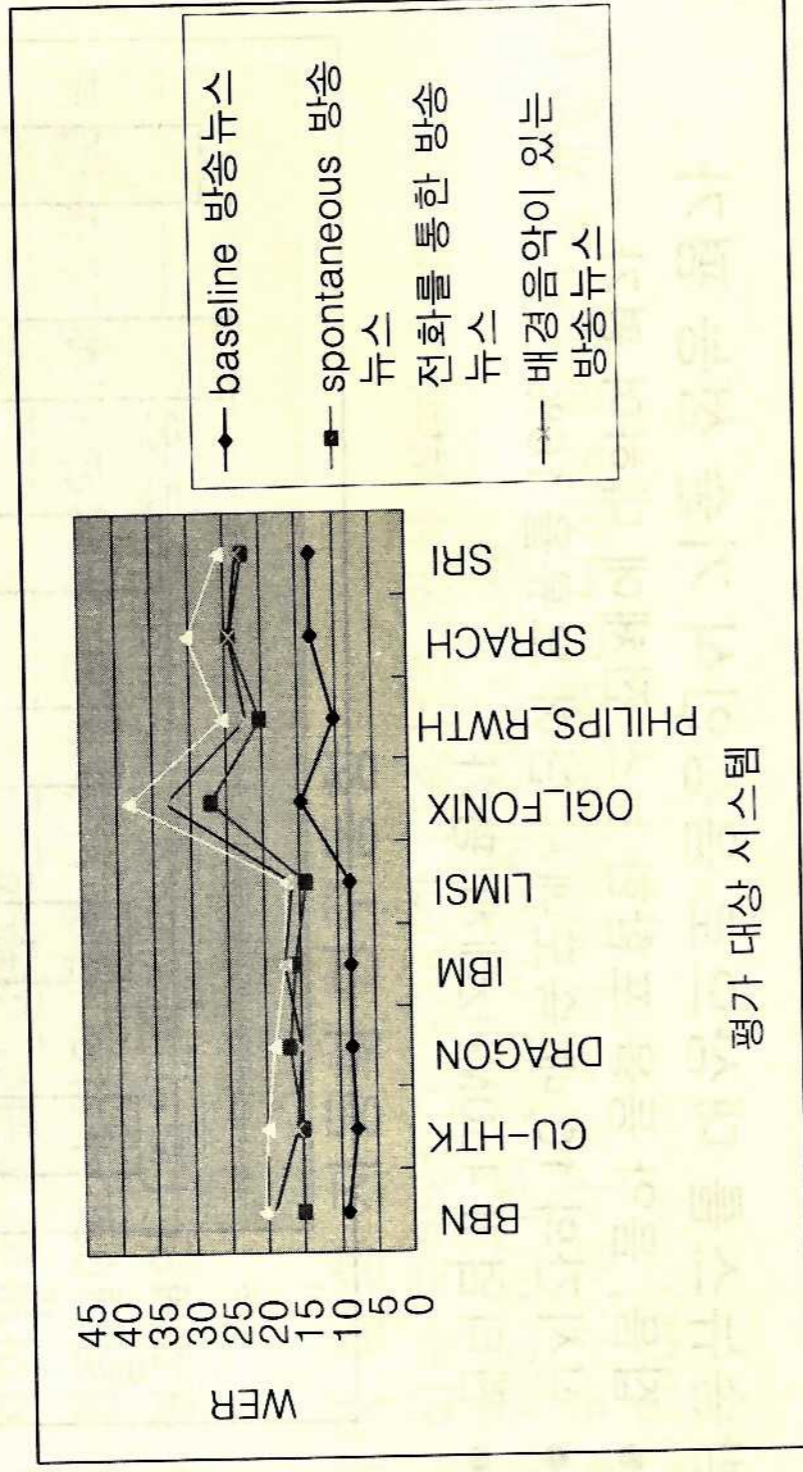
ETRI

- 방송뉴스를 대상으로 음성인식 기술 성능 평가
 - 잡음, 음악 등을 포함한 뉴스 전체에 대하여 평가
 - 실시간의 10 배 속도에서 단어 오류율 16%
 - 펜티엄 II 450MHZ에서 평가



ETRI Proprietary

- 시간제한이 없는 경우
 - 각 잡음 상황에서의 음성인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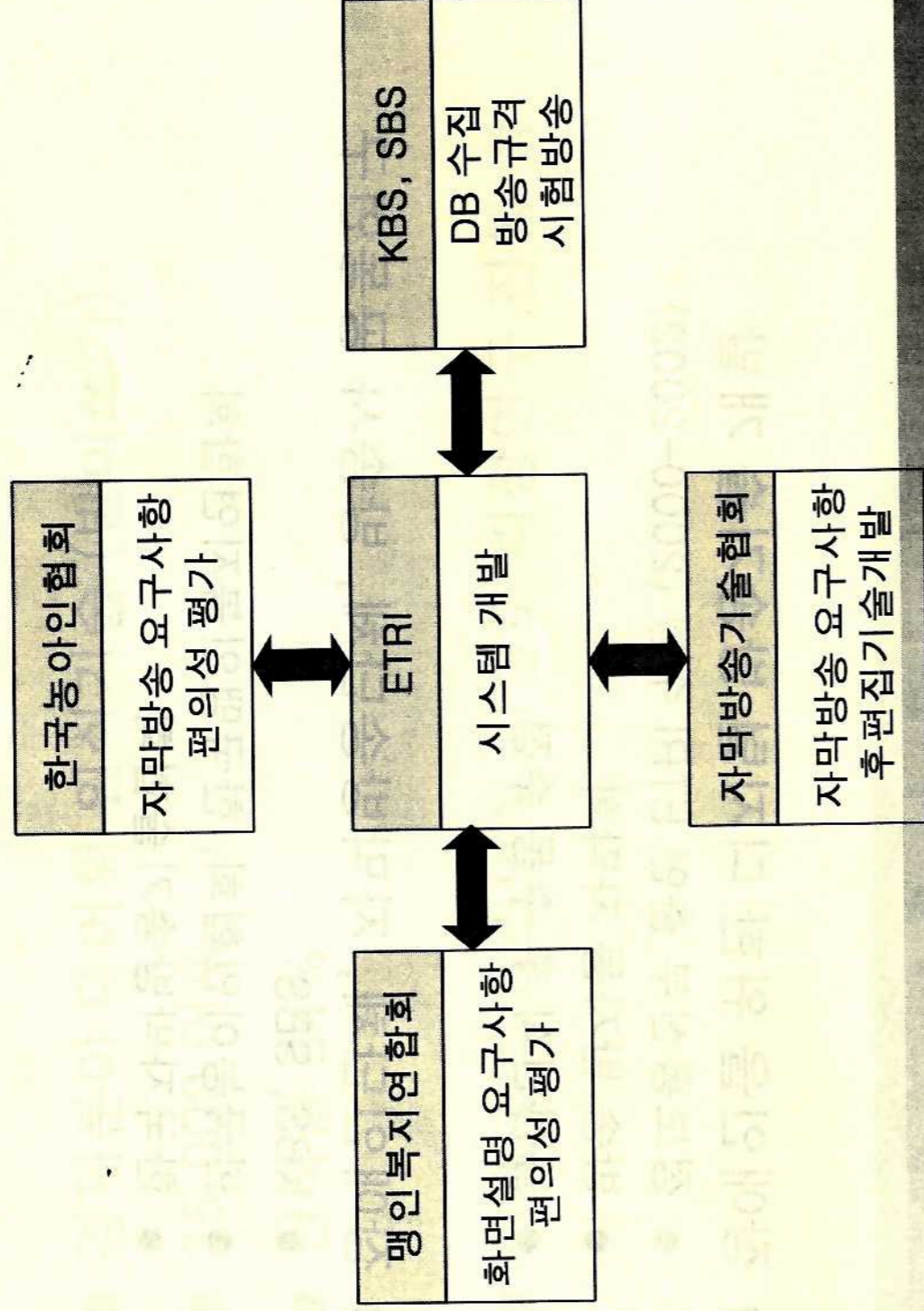
일본 NTT 연구

- 2002년 개발목표
 - 아나운서의 경우 만 95% 인식률 (인터뷰, 대화 제외)
 - 2초 지연
- 현재 20,000 단어 89%, 23초 지연
- 4개 대학 및 1개 산업체 참여

- 경제분야 대어휘 인식기술 (받아쓰기)
- 35,000 어휘
- 인식을 84%
- 현재 방송뉴스인식 기술로 확장연구 진행 중

방송 반자동 자막화 기술 개발

-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방송기술 개발
 - 정보통신부 출연 ETRI 수행 (2000-2002)
 - 방송 반자동 자막화
 - 음성인식 후 수동 수정
- 장애인단체, 자막방송단체, 방송사 공동연구
 - KBS, SBS
 -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 한국자막방송기술협회



- 음성인식을 이용한 반자동 자막처리
 - 방송뉴스 데이터베이스 수집
 - 방송뉴스 인식기 개발
 - 방송뉴스 인식 자막방송시스템 개발
- 발화속도 변환 기술
- 장애인용 방송 서비스 표준 개발

■ 자막방송 비율 확대방안

- 자막화 오류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은 자동 자막화 실시
- 주요 내용은 반자동 자막화로 오류 축소

■ 청각장애인에게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

TV 자막방송의
시청 현황과
과 제

김 권 환
한국농아인협회 기획홍보과장

TV자막방송 시청 현황과 과제

- 김철환(한국농아인협회)

I 들어가며

그 동안 농아인들은 방송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농아인들의 방송으로부터의 소외는 최근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방송접근(public access)과는 다른 별개의 의미이다.

일반 공중(公衆)은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를 방송을 통해 표현한다던가 방송의 내용 결정 과정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권리를 전통적인 미디어 접근권인 방송접근권이라고 한다면 농아인들에게 있어서 방송의 접근권은 전통적인 미디어 접근권처럼 적극적으로 미디어에 참여하고자 하는 권리와는 다른 인간의 기본권이요 생존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동안 농아인들은 듣지못함으로 인하여 방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고사하고 방송 내용에 전혀 접근할 수가 없었다. 또한 방송에서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일반인들이 누리는 방송을 통한 정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형성되는 대중문화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일반 대중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왔다.

방송이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농아인들의 이러한 방송을 통한 정보 혜택의 불이익과 대중문화로부터 받는 소외는 단순한 불이익과 소외의 범위에서 벗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적응하고 대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비해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열악하고 낙후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2월 MBC를 시작으로 KBS, SBS가 자막방송을 실시하게 되었고 지난 3월부터는 EBS에서도 자막방송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사의 자막방송의 실시로 이제는 농아인들도 TV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는 농아인들의 사회권적인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자막방송의 확대를 통하여 확보된 농아인들의 방송 접근의 권리가 더 확대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통해 자막방송을 시청하는 농아인들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농아인들의 자막방송 시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자막방송 시청 후 농아인들의 삶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자막방송이 농아인들에게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보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II 설문조사

이 설문은 TV자막방송이 1주년을 맞아 농아인들의 TV자막방송 시청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이며, 조사분석 내용은 가능하면 요점만 정리하여 실었다. 또한 항목 분석 내용 가운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인적인 견해도 사족(蛇足)으로 곁들였음을 밝혀 둔다.

가. 조사 기간

- 2000년 2월 18일~3월 15일 (신국농아인협회)

나. 조사 방법 및 대상

- 개별 면접 조사가 어려워 전국에 있는 농아인협회와 서울 지역 농아인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포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시도에 있는 농아인협회와 서울 지역 농아인교회를 이용하는 농아인 200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다. 통계 방법

- 수집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한 빈도분석을 주로 하였다.

라. 조사 내용

- 조사 내용은 기초 사항, 자막수신기 사용 현황, 자막방송 시청, 자막방송 시청 후의 변화로 하였다.

마. 조사의 한계

- 배포한 설문에 비해 회수된 설문 회수율이 65%에 그쳤다.
- 수화통역 인력의 부족으로 농아인들에게 개별 면접을 통해 설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화로 설명을 해주지 못했다.

- 설문에 응답한 농아인 가운데는 자막방송을 시청하지만 자막수신기를 갖고 있지 않은 농아인이 33.3%나 되어 설문을 분석하는데 변수로 작용했다.
- 통계처리에 있어서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교차분석에 대한 내용은 실지 않았다.

1. 조사 응답자의 특성

1) 성별

〈표 1〉 조사 응답자의 성별 분포

남자	여 자	무응답	계
87 (63.0%)	49 (35.5%)	2 (1.4%)	138 (100.0%)

2) 연령

〈표 2〉 조사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무응답	계
4 (2.9%)	28 (20.3%)	39 (28.3%)	47 (34.1%)	18 (13.0%)	2 (1.4%)	138 (100.0%)

3) 장애등급

〈표 3〉 조사 응답자의 장애등급별 분포

청각2급	청각3급	청각4급	무응답	계
130 (94.2%)	5 (3.6%)	2 (1.4%)	1 (0.7%)	138 (100.0%)

4) 의사소통 형태

〈표 4〉 조사 응답자의 의사소통 형태별 분포

농식수화 사용	문장식 수화사용	혼용수화, 가끔 구화 사용	구화를 주로 사용	구화만 사용	수화, 구화 못함	무응답	계
67 (48.6%)	28 (20.3%)	34 (24.6%)	1 (0.7%)	1 (0.7%)	5 (3.6%)	2 (1.4%)	138 (100.0%)

5) 직업

<표 5> 조사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

사무직	전문직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자영업	농, 어업	학생	무직	무응답	계
16 (11.6%)	6 (4.3%)	21 (15.2%)	5 (3.6%)	18 (13.0%)	3 (2.2%)	11 (8.0%)	46 (33.3%)	12 (8.7%)	138 (100.0%)

6) 학력

<표 6> 조사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

무학	일반학교 초졸	일반학교 중졸	일반학교 고졸	농학교 중졸	농학교 고졸	대졸 이상	무응답	계
5 (3.6%)	19 (13.8%)	7 (5.1%)	21 (15.2%)	35 (25.4%)	28 (20.3%)	13 (9.4%)	10 (7.2%)	138 (100.0%)

<응답자의 특성 종합>

조사에 참여한 농아인들의 성별 분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조사된 이유는 남자들이 단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령별 분포에서는 20대~40대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장애등급별 분포에서 94.2%가 청각 2급인 중증으로 나타나 자막방송 시청이 보청기 등을 통해서 잔존(殘存) 청력을 활용하여 TV를 시청하는 '난청인(難聽人)'이 아닌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농(聾, 聾은 통상적으로 청력 상실이 90dB 이상인 자를 말한다)'이 많이 시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인 이들은 잔존 청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 의사소통 방법은 70% 이상이 수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 조사 대상 가운데 무직(無職)이 33.3%나 되어서 자막방송 시청을 위해 별도의 수신기를 구입해야 하는 농아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대상자의 학력은 대부분 일반 학교보다는 농학교를 졸업했음을 볼 수 있다.

2. 자막수신기 소유 등

7) 자막수신기 소유 여부

<표 7> 조사 응답자의 자막수신기 소유 여부별 분포

소유	무소유	무응답	계
90 (65.2%)	46 (33.3%)	2 (1.4%)	138 (100.0%)

조사 응답자 가운데 33.3%가 자막수신기가 없다고 답변해 지금도 자막수신기가 없어 자막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농아인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었다.

우리 협회에서 올해 2월 자막수신기 보급 현황 조사에 의하면 자막방송이 실시된 이후 작년 한해 동안 보건복지부와 우리 협회에서 농아인들에게 무료로 보급한 자막수신기 1,600여대와 농아인 개인이 업체로부터 구매한 수신기 6,000여대를 합하면 외장형 자막수신기 보급이 8,000대 가량, 자막 수신용 TV(LG사 TV 20인치)는 2,000여대(추정치임, 이 수치는 농아인학교 등 농아인단체에서 사용하는 자막TV 포함한 것임)정도 보급되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 적이 있다.

단순히 이 통계만 놓고 볼 때도 현재 정부에 등록된 농아인이 6만 3천여 명 이상(1995년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서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19만 4천여 명으로 나타났음)으로 볼 때 농아인들에게 보급된 자막수신기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8) 자막수신기 종류

<표 8> 조사 응답자가 소유한 자막수신기의 종류 분포

외장형 수신기	내장형 자막 TV	없다	계
74 (53.6%)	16 (11.6%)	48 (34.8%)	138 (100.0%)

이 수신기 분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막방송 시청 농아인 가운데 53.6%가 외장형 자막수신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막 수신 기능이 내장된 자막TV를 통해서 자막방송을 시청하는 농아인도 1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막TV를 통하여 자막방송을 시청하는 농아인 대부분도 농아인단체나 농아인교회를 통하여 시청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막TV는 가격도 비싸고(99년도 처음 출시할 당시 소비자는 100만원을 넘었음) 모델도 다양하지 않아 농아인들이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자막수신기 구입 방법

<표 9> 조사 응답자가 소유한 자막수신기의 구입 방법 분포

개인구입	농아인협회에서 받음	정부에서 보급	기타	없음	계
15 (10.9%)	68 (49.3%)	5 (3.6%)	2 (1.4%)	48 (34.8%)	138 (100.0%)

자막수신기 구입 방법에서는 99년도에 우리 농아인협회에서 시도 농아인 협회를 통하여 농아인들에게 자막수신기를 무료 보급한 영향 때문인지 농아인 협회에서 받았다고 응답한 농아인이 68명 49.3%나 되었다.

10) 자막방송 시청 횟수

<표 10> 조사 응답자의 자막방송 1주일 시청 횟수 분포

매일	4일정도	2-3일정도	1-2일	시청못함	계
57 (63.3%)	7 (8.7%)	10 (11.1%)	9 (10.0%)	7 (8.7%)	90 (100.0%)

자막수신기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막수신기 보유자의 60%이상이 매일 자막수신기를 이용하여 자막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자막수신기 보유자의 85% 이상이 1주일에 2일 이상 자막방송을 시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택수의 “시청각장애인의 대중매체 이용과 정보 불평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 평균 2~3시간 이상 TV를 시청(자막 없이)하는 농아인이 조사 농아인의 50%정도로 나타난 적이 있는데 조사 내용이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이번 조사에서 자막방송을 실시하기 전과 비교해 보면 자막방송을 통하여 TV를 시청하는 농아인이 많아졌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11) 자막수신기가 없는 이유

<표 12> 조사 응답자 중 자막수신기가 없는 이유 분포

구입할 돈이 없어서	가격이 내려가면 사려고	구입 방법을 몰라서	필요가 없어서	기타	계
20 (41.7%)	4 (8.3%)	14 (29.2%)	4 (8.3%)	6 (12.5%)	48 (100.0%)

<표 5>에서도 나타났지만 자막방송 시청을 위한 자막수신기 구입에 있어서 걸림돌이 경제적인 이유인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자막수신기가 없는 농아인 50%정도가 금전적인 이유로 수신기 구입을 미루고 있다.

12) 차후 구입 여부

<표 12> 조사 응답자 중 자막수신기 차후 구입 여부 분포

구입하겠다	좀 더 생각해 보고	정부에서 지급 원함	생각 없다	무응답	계
11 (22.9%)	12 (25.0%)	21 (43.8%)	2 (4.2%)	2 (4.2%)	48 (100.0%)

<표 11>에서 보듯이 수신기를 구입하지 못한 농아인 가운데 응답자의 43.8%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막방송의 이해 정도 등

13) 내용 이해 정도

<표 13> 수신기 보유자 중 자막방송 시청시 내용 이해 정도 분포

거의 대부분	60%정도	조금 이해됨	이해가 전혀 안됨	무응답	계
24 (26.6%)	25 (27.7%)	39 (43.3%)	2 (4.2%)	25 (27.7%)	90 (100.0%)

응답자의 50%이상이 TV내용을 60%이상 이해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나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도 4.2%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

<표 14> 수신기 보유자 중 자막방송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 분포

자막이 너무 빨라서	문장이 너무 어려워서	문장을 읽는데 자신 없어서	무응답	계
37 (41.1%)	18 (20.0%)	10 (11.1%)	25 (27.7%)	90 (100.0%)

자막방송을 통해서 TV를 시청하지만 내용 이해가 완전히 안 되는 이유 가운데 응답자의 41.1%가 자막 속도가 빨라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그 외에 문장이 어렵거나 문장에 대한 이해력 부족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응답자의 31.1%나 되었다.

미국의 갈로렛(Gallaudet) 대학교 인구통계연구소(ODS)에서 1970년대 중반 몇 년간에 걸쳐 농학생의 독해 능력과 산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던 검사에서 평균적으로 20세의 농학생 가운데 약 반 정도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4학년 중간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문장 독해력을 갖고 있어 신문을 읽어 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이 통계자료는 외국에서 실시한 검사 자료라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음성언어의 어법과 판이하게 다른 수화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농아인들도 이 통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인간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공통적인 언어형식을 익히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가치관을 확립하고 습관을 익히고, 문화유산을 적절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공통적 언어형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음성언어와는 체계가 다른 시각언어인 수화이기 때문에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반인들이 지배하는 공통적인 언어 양식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농아인의 TV시청을 위해 자막방송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화통역방송의 실시 등에 대한 폭넓은 시도도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15) KBS-1, MBC 프로그램 수 만족도

〈표 15〉 조사 응답자의 자막방송 프로그램 수 만족도 분포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7 (7.8%)	13 (14.4%)	31 (34.4%)	25 (27.7%)	15.6 (10.1%)	90 (100.0%)

현재 KBS-1과 MBC에서 실시하는 자막방송 프로그램 수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자막수신기 보유자의 20% 정도만이 자막방송 프로그램 수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40%이상은 만족하지 못하다고 답해 농아인들의 방송 시청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두 방송사에서 자막방송 프로그램을 꾸준히 늘려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16) KBS-2, SBS 자막방송 확대 프로그램

〈표 16〉 조사 응답자의 자막방송 확대시 우선 시청 프로그램 분포

보도프로그램	교양프로그램	오락프로그램	계
33 (36.7%)	26 (28.9%)	31 (34.4%)	90 (100.0%)

자막방송 실시가 없거나 거의 하지 않고 있는 KBS-2와 SBS 방송프로그램 가운데 확대했으면 하는 질문에 항목마다 비슷한 답변이 나와 방송프로

그램의 대부분을 시청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EBS 자막방송 확대 프로그램

〈표 17〉 조사 응답자 중 자막방송 확대시 우선 시청 프로그램 분포

어학프로그램	강의프로그램	교육 프로	없 다	계
16 (17.7%)	10 (11.1%)	55 (61.1%)	9 (10.0%)	90 (100.0%)

을 3월 자막방송을 시작한 EBS 방송프로그램 가운데 앞으로 자막방송을 확대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싶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교육 프로그램을 원했다.

미디어 교육의 발달과 일반 학생들의 사설 학원 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디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일반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농아인들은 듣지못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사설 학원은커녕 미디어 교육에 접근할 기회조차 없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방송사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농아 학생들의 교육방송 접근을 통해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세워야 한다.

4. 자막방송 시청 후 변화

18) 자막방송 시청 후 전체적인 변화

〈표 18〉 조사 응답자의 자막방송 시청 후 전체적인 변화 여부 분포

예	아니오	무응답	계
79 (87.8%)	6 (6.7%)	5 (5.5%)	90 (100.0%)

자막방송 시청이 농아인에게 가져다 준 것 가운데 하나가 자막방송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왔다는 것이다. 이 설문에서도 자막수신기가 없어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농아인을 제외하면 자막방송 시청 농아인의 87.8%가 변화가 있다고 답하였다.

농아인의 자막방송 시청 후의 변화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관찰·연구해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자막방송을 실시 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은 자막방송 실시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19) 개인적인 변화 (복수 응답)

<표 19> 조사 응답자 중 자막방송 시청 후 개인적인 변화 내용 분포

자막을 능숙하게 읽을 수 있게 됨	문장력에 자신감 생김	정보를 얻음	정보를 다른 곳에 사용함	계
23 (21.7%)	11 (10.4%)	45 (42.5%)	27 (25.5%)	106 (100.0%)

위 문항에 대한 분석 14)에서도 거론했지만 문자언어에 취약한 농아인들이 개인적으로 자막방송을 통하여 응답자의 31.1%가 문장독해 등 향상 효과를 나타냈다는데 대하여 자막방송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수화를 통하여 대부분의 정보를 습득하던 농아인들이 TV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소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68.0%)는 결과를 놓고 볼 때 앞으로 자막방송이 농아인들의 사회 재활에도 한몫을 담당할 수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해본다.

20) 대인관계 변화 (복수 응답)

<표 20> 조사 응답자 중 자막방송 시청 후 대인관계 변화 내용 분포

가족들과 방송에 대한 이야기 공유	친구들과 TV 이야기를 자주 함	이야깃거리가 많이 생김	유익해졌다고 생각함	계
44 (37.0%)	36 (30.3%)	26 (21.8%)	13 (10.9%)	119 (100.0%)

자막방송 시청을 통하여 가족 또는 친구들과 대화의 시간이 많아졌다고 답한 응답자가 70%가까이 되어 자막방송 실시가 가족관계나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으로 이야깃거리가 생기는데 유익해졌다고 답한 응답자도 32.7%나 되었다.

유아기 때 실청(失聽)한 농아동들은 성장함에 따라 장애를 받아 드리는 방법의 변화를 보인다고 한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주저함, 발음에 대한 열등감 등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감과 중압감으로 자신이 난청(難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서 성장함에 따라 친구들과의 차별 등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선을 긋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집단 속에서 자신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로써 장애를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농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농아 자녀가 장애에 관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노력도 중

요하겠지만 부모와 농아동간의 대화를 통한 관계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농아인을 둔 부모 가운데 대부분이 수화를 잘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농아인 자녀와 일반인 부모 사이에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대화의 소재조차 없어 대화가 단절되고 있다.

위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자막방송 시청이 농아인 당사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 및 가족 상호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통로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도 앞으로 기대해 볼만하다.

21) 문화생활 변화 (복수 응답)

<표 21> 조사 응답자 중 자막방송 시청 후 문화생활의 변화 내용 분포

TV시청시간 늘어남	신문의 TV 방송프로그램 자주 보게 됨	전에 비해 신문이나 책을 많이 읽음	기회 생기면 글을 쓰고 싶다	계
34 (33.3%)	46 (45.1%)	13 (12.7%)	9 (8.8%)	102 (100.0%)

분석 19) 개인적인 변화에서와 같이 자막방송의 시청을 통하여 미디어에 대한 접근 욕구가 많이 증대(91.2%)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장력에 취약한 농아인들이 자기 생각을 문자 언어로 표출해 보고 싶다는 욕구를 보인 것(8.8%)은 농아인 갖고 있는 시각 언어의 사고의 틀이 자막방송을 통해 변화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짐쳐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의 요약>

가. 설문조사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의외로 응답자 가운데 자막수신기가 없다(33.3%)는 답변을 많이 해 아직도 많은 농아인들이 자막수신기가 없어 TV자막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자막수신기를 구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막수신기가 없는 응답자의 50%가 금전적인 이유라고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외장형 자막수신기는 15만원에서 20만원 선인데 농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일텐데 이 정도 가격에도 구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이 조사에서 33.3%가 무적으로 나타났다) 판단이 된다.

또한 자막수신기를 갖고 있지 않은 농아인의(무응답자 중 자막수신기가 없

는 농아인도 포함) 43.8%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막방송의 시청에서 자막방송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요소는 자막이 빠르다라고 41.1%가 답할 정도로 자막 속도가 빨라 자막방송 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장에 자신이 없어서 시청이 어렵다는 농아인도 31.1%나 되었다.

다. 자막방송 프로그램 수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이상 이 더 지금보다 더 확대해 주길 바라고 있고, KBS-1, MBC 이외에 KBS-2, SBS의 방송프로그램에도 실시, 확대해 주길 바라고 있다.

또한 EBS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자막방송을 실시했으면 하는 욕구도 응답자의 50%를 넘고 있다.

라. 자막방송의 시청 후 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막방송 시청 후 변화가 있다고(응답자의 87.8%) 답했다.

개인적인 변화의 내용에서는 문장에 대한 자신감과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한다는 답변을 했으며, 대인관계의 변화에서는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의 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또한 문화생활의 변화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 욕구가 증대했으며, 미미하지만(응답자의 8.8%) 창작욕구도 생겼다는 대답도 있었다.

이 내용을 통해 추측해 보면 자막방송 시청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지금은 이르지만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자막방송을 통하여 농아인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진다.

III 제언

자막방송의 확대와 발전은 몇 사람 혹은 특정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 실시한 'TV 자막방송 시청 만족도 조사'의 설문 분석을 기초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다같이 머리를 맞대 보자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提言)하고자 한다.

가. 수신기 보급과 자막 기능 내장화

현재 보급되고 있는 자막수신기는 외장형이라 별도로 구입하여 수상기에 부착해야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99년

하반기부터 생활보호대상 농아인에게 무료 교부를 하고 있지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농아인에게 수신기 보급하는 것은 예산의 한계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기금의 활용이나 기업체의 후원을 통한 자막수신기 보급이나 방송 기금인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하여 농아인들에게 수신기를 보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자막 수신 기능이 내장되어 내장형으로 국내 시장에 출시된 TV는 29인치 대형 TV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농아인들이 구입하기에 부담이 있다. 미국이 1993년7월부터 자국 안에서 판매되는 13인치 이상의 모든 TV에 자막 수신 기능을 내장하도록 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일정 크기 이상의 TV에 자막 수신 기능을 내장하여 농아인들이 구입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현재 생산하는 TV에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앞으로 국내에 본격적으로 시판될 디지털TV에 자막 수신 기능이 내장될 수 있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자막방송 기술 규격의 표준화도 필요하다.

나. 자막방송 프로그램의 확대

미국 등 방송 선진국에서는 공공방송의 황금시간대 프로그램에는 100% 자막방송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방송에서도 모든 프로그램에 100% 자막처리를 위하여 계획들을 세워 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아인들이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을 우선하여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시~오후 11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오후 11시)에는 100%자막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민방과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에서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방송사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EBS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농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EBS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 프로에도 자막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자막지원센터 설립

현재는 방송사에서 자막방송 운영 예산을 부담하고 있지만 자막방송이 계속 확대되면 방송사에만 운영 예산을 맡기기에 무리가 따르리라 보여진다. 따라서 앞으로 자막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사의 운영 재원 이외에

방송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의 활용과 일반 기업체의 협찬, 개인 후원 개발을 통한 예산 확보도 매우 필요하다.

또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집행이나 자막 기술 연구·개발, 사업 홍보, 속기사 공급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데 현재에는 이런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의 기구가 없다.

따라서 방송위원회의 산하 기구나 장애인단체의 산하 기구로써 자막방송을 지원하고 조절할 수 있는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라. 관계법률의 정비 등

농아인들의 오랜 요구로 장애인복지법률과 방송법률에 자막방송을 할 수 있는 근거^{*1}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아인들의 방송접근의 문제는 자막방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수화통역을 활용한 방송이라든가, 첨단 기기를 활용하여 방송접근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들을 한곳에 모아져야 한다. 또한 자막방송의 체계적인 지원, TV를 생산하는 가전업체에 대한 규제 등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자막방송이나 장애인의 정보접근 관련 법률^{*2}조항 등을 모아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IV 맺으며

방송에서의 자막방송의 실시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농아인들에게는 자막방송 실시가 방송에 접근하는 통로를 뛰어넘어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수단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막방송 실시는 정보의 소외를 받고 있는 농아인에게 21세기 정보화사회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만나는 복음(福音)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자막방송이 실시된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필자는 지금도 지난 해 2월, 자막방송을 처음으로 시청하던 농아인들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막혔던 귀가 열리는 듯한 기분이다'라고 감격에 겨워 탄성을 올리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자막방송의 실시는 이러한 감동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되며 농아인들에게 방송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자막방송을 통하여 농아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통

로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각계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지금보다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

*1: 자막방송실시 근거 법률

<방송법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법 제6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화 또는 폐쇄자막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 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수화·폐쇄자막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1. 방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방송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0조 내지 제74조, 제82조 및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
3.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기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2. 정보접근 관련 법률명

- 가. 장애인복지법
- 나. 방송법
- 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 라. 전기통신사업법

■참고문헌---

-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사회와 장애인」, 1997. P50
- 방송위원회, 「TV폐쇄자막방송 실시를 위한 정책 방안」, 1997. P1
- 이택수, 「시청각장애인의 대중매체 이용과 정보 불평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92. P43
- 대구대학교, 「청각장애아 교육」, 1992. P119~120
- 田中美郷·廣田榮子 공저, 「聽覺活用の實際」, 청음회관 역, 1999. P170~171

TV 자막방송 시청 만족도 조사

(사)한국농악인협회

TV자막방송 시청 만족도 조사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건강과 가내의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우리 한국농아인협회는 전국 35만 농아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지난해 2월 12일 MBC를 필두로 시작한 TV자막방송이 방송프로그램의 확대와 수신기의 보급 등의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벌써 1년을 넘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 '자막방송 1년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농아인들이 자막방송 시청 만족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자막방송의 발전을 위한 자료로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2000년 3월 (사)한국농아인협회
전화(02)588-3368/ 전송(02)3473-3119/ kdeaf@chollian.net

응답요령

*다음 각 항의 해당 번호 ()안에 'V' 표시를 하면 됩니다.

▶ '☐' 에서는 해당 내용을 잘 보시고 해당 항목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①예 <☐ 질문 10번으로 가세요>

②아니오 <☐ 질문 13번으로 가세요>

● 다음은 기초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가. 남() 나. 여()

2. 귀하의 나이는?

가. 10대() 나. 20대() 다. 30대()

라. 40대() 마. 50대 이상()

3. 귀하의 장애등급은?

- 가. 청각 2급() 나. 청각 3급() 다. 청각 4급()
- 라. 청각 5급() 마. 청각 6급() 바. 기타()

4. 귀하의 의사소통 형태는?

- 가. 농아식(전통)수화를 주로 사용() 나. 구화를 주로 사용()
- 다. 주로 혼용(문장수화 혼용) 수화를 사용()
- 라. 주로 혼용 수화를 사용하나 가끔 구화를 같이 사용()
- 마. 구화만 사용() 바. 수화/구화 못함() 사. 기타()

5. 귀하의 직업은?

- 가. 사무직() 나. 전문직() 다. 생산직() 라. 판매, 서비스직()
- 마. 공무원() 바. 자영업() 사. 농업, 어업() 아. 학생()
- 자. 무직() 차. 기타()

6. 귀하의 학력은?

- 가. 무학() 나. 일반학교 국졸() 다. 일반학교 중졸()
- 라. 일반학교 고졸() 마. 농학교 중졸()
- 바. 농학교 고등학교 재학() 사. 대졸(전문대 이상)()

● 다음은 자막수신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7. 귀하는 현재 자막수신기(자막TV 포함)를 갖고 계십니까?

- 가. 예() < 8번 질문으로 가세요 >
- 나. 아니오() < 11번, 12번으로 가세요 >

8. 귀하가 갖고 있는 자막수신기(자막TV)는 어떤 종류입니까?

- 가. KBS(농아사회정보원 포함)제품() 나. 빅셀제품()
- 다. 자막TV(LG20인지)() 라. 기타()

9. 현재 귀하가 갖고 있는 자막수신기(자막TV) 구입 방법은 무엇입니까?

- 가. 개인 구입() 나. 농아인협회에서 보급()
- 다. 정부(군청, 시청, 구청)에서 보급() 라. 기타()

10. 귀하는 자막수신기(자막TV)를 통하여 1주일에 몇 번 정도 자막방송을 시청합니까?

- 가. 매일() 나. 4일 정도() 다. 2~3일()
- 라. 1~2일() 마. 시청안함()

11. 7번에서 자막수신기(자막TV)가 없다고 답하신 분만 보세요.

자막수신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 구입할 돈이 없어서() 나. 구입 방법을 몰라서()
- 다. 가격이 내려가면 사려고() 라. 필요가 없어서()
- 마. 수신기가 있어서() 바. 기타()

12. 자막수신기가 없는 분 가운데 앞으로 자막수신기를 구입할 생각은 있습니까?

- 가. 구입하겠다() 나. 좀더 생각 해봐야겠다()
- 다. 정부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것을 받고 싶다()
- 라. 생각 없다()

● 다음은 자막방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13. 자막방송을 시청할 때 방송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 가. 거의 다() 나. 60%정도()
- 다. 조금 이해됨() 라. 이해가 전혀 안됨()

14. 13에서 '라. 이해가 안 된다'라고 답하신 분만 보세요.

자막방송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 자막이 너무 빨라서()
- 나. 문장이 너무 어려워서()
- 다. 자막과 배경이 맞지 않아서()
- 라. 글씨를 읽는데 자신이 없어서()

15. 현재 KBS와 MBC에서는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20~25%를, EBS에서는

10%정도, SBS에서는 5%내외로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자막 방송 프로그램 수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가. 매우 만족() 나. 만족() 다. 그저 그렇다()
- 라.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16. 15번에서 '라. 마. 불만족하다' 라고 답하신 분만 보세요.

현재 자막방송을 거의 하지 않는 KBS-2, SBS프로그램 가운데 자막방송을 한다면(확대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우선 보시겠습니까?

- 가. 정보전달을 우선 하는 보도프로그램()
- 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양프로그램()
- 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오락프로그램()
- 라. 없다()

17. EBS에서는 자막방송을 실시한지 얼마 안되어 현재는 교양프로그램 순으로 자막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BS에서 교육프로그램에도 자막방송을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시청하실 것인지 적어 주세요.
- 가. 영어/일어 등 어학프로그램()
 나. 입시 대비 중심의 강의 프로그램()
 다. 교양을 목적으로 제작된 교육프로그램() 라. 없다()

18. 다음은 KBS에서 실시하는 자막방송프로그램입니다. 아래의 표에 귀하가 현재 시청하고 계신 프로그램의 1달 동안 시청 횟수를 적어주세요.

자막방송 프로그램	KBS 저녁뉴스	스포츠뉴스	TV유치원	해드고달드고	왕과비	나의사랑나의가족	대추나무사랑결렸네	사랑의리퀘스트	KBS일요스페셜	명화극장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강력추천교과채프	환경스페셜	역사스페셜	퀴즈탐험신비의세계	정범구의 시사비평
구분																	
1달간 시청회수																	
잘 시청하지 않는다																	

19. 다음은 MBC에서 실시하는 자막방송프로그램입니다. 아래의 표에 귀하가 현재 시청하고 계신 프로그램의 1달 동안 시청 횟수를 적어주세요.

자막방송 프로그램	MBC 뉴스 데스크	뽀뽀뽀	MBC 뉴스	만화 "툼과제리" 등	날마다 행복해	남의 속도 모르고	칭찬합시다	출발비디오여행	날씨와 생활	미니시리즈	드라마 허준	생방송 퀴즈가 좋다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주말의 명화
구분																
1달간 시청회수																
잘 시청하지 않는다																

● 다음은 자막방송 시청 후 삶의 변화에 대해서입니다.

20. 자막방송을 시청하고 난 후 귀하에게 조금의 변화라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예() < 질문 21번으로 가세요 > 나. 아니오()
21.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자막방송을 시청하고 나서부터 생긴 변화를 모두 골라 주세요.
 가. 처음에는 TV자막을 잘 못 읽었는데 차차 자막을 읽을 수 있었다()
 나. 문장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자막방송을 통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다. TV자막방송 뉴스를 통하여 많은 정보(소식)를 얻고 있다()
 라. TV자막방송을 통하여 얻은 정보(지식)를 다른 곳에 사용한 적이 있다()
22. 대인관계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자막방송을 시청하고 나서부터 생긴 변화를 모두 골라 주세요.
 가. 집안 식구들하고 TV자막방송을 시청한 후부터 방송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한다()
 나. 친구들하고도 TV얘기를 자주 하게 되었다()
 다. 예전에 비해 이야기 거리가 많이 생겼다()
 라. 사람들이 가끔 나를 보고 유식해졌다고 말한다()
23. 문화생활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자막방송을 시청하고 나서부터 생긴 변화를 모두 골라 주세요.
 가. 신문이나 책을 읽기 싫어했었는데 요즘은 가끔 읽는다()
 나. TV보는 시간이 부족 늘었다()
 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TV 방송프로그램을 자주 보게 되었다()
 라. 글쓰기를 싫어했었는데 기회가 생기면 글을 쓰고 싶다()
24. 마지막으로 자막방송의 보다 좋은 시청과 발전을 위하여 귀하의 생각을 적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보 마당 I — TV 자막수신기

TV 자막수신기 기능분석과 비교

사용자 편의에 중점 둔 다양한 기능 — KBS 영상사업단
단어사전 기능 탁월, 가격저렴 — (주)빅셀 디지털 캡션

김상화 농아사회정보원장

방

송정보통신의 기술 발달로 인해 농아인에게도 다양한 정보접근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통신을 활용한 인터넷 방송국의 출현, 라디오 방송의 FM 부가서비스, TV 자막방송 등이 그것이다. 특히 TV자막방송은 농아인에게 있어서 다양한 영상프로그램을 통한 일반 건청인 문화와의 통합과 언어습득 향상 등 중요한 정보접근의 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농아인들이 TV자막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이 지면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TV 자막방송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농아인이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출연자의 목소리를 자막형태로 보여주는 방송부가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기존의 TV 방송신호에 자막신호를 실어보내는 방송으로, 일반 TV로는 자막이 보이지 않지만 자막기능을 갖춘 TV나 자막수신기를 통하여 볼 수 있다. 캡션방송 또는 폐쇄자막(Closed Caption)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음성을 자막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농아인 개인간의 청각장애 정도의 차이에 따라 수화통역방송의 보조수단으로 또는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건청인들에게는 주변이 소란스러운 공항, 역 대합실, 버스터미널, 음식점, 커피숍 등의 공공장소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물론 한글을 익히는 아동이나 외국인 학습자에게도 교육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하게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하여 더욱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막방송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음성을 자동으로 TV를 통해 자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두 명의 컴퓨터 속기사가 한 조가 되어 헤드폰의 음성으로 나오는 내용을 듣고 그대로 타이프하여 그것을 우리가 TV화면을 통해 자막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음성과는 1~2줄 정도 속도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속기 실력이 외국에 비해서 정확도도 좋고

KMEN700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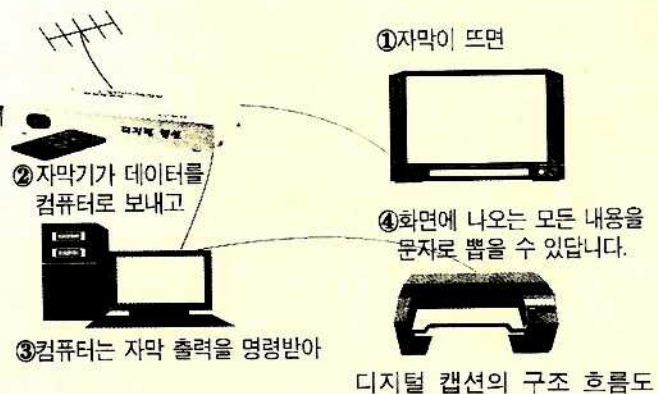


(98~99%) 속도도 빠르다고 한다. 현재 연구가 진행중이어서 앞으로는 실제 음성을 속기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자막으로 보여질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속기사도 새로운 직장을 찾아봐야할 것 같다.

현재 TV자막수신기는 4가지 모델이 출시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은 국내 가전사의 하나인 LG전자에서 내놓은 TV안에 장착된 자막수신용TV이다. 지난 2월 12일 MBC를 통해 처음으로 자막방송이 시작됨과 동시에 내놓은 제품으로 농아인들로부터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제품이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TV를 버리고 새로 구입해야하는 부담과 100만원대의 높은 가격(현재는 70만원대) 때문에 거의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기증을 통해 받거나 신희가정, 또는 기존의 TV가 오래되어 새로 구입하려했던 사람들, 정도가 구입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요즘은 새로 나온 외장형 자막수신기가 기능이 더 좋아짐에 따라 이미 자막 TV를 구입한 사람들이 자막수신기를 별도로 구입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LG의 자막수신용TV는 단순히 자막 자체만을 내보내는 형태로 특별한 기능이 없다. 특히 자막 글자모양은 16*16 폰트로 글자모양 자체가 엉성하고 자막배경이 검정색 바탕이기 때문에 그 검정 띠에 가려서 뒤에 나오는 영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방해받을 수 있다. 단지 장점이라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부족한 기능과 가격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자막수신기 시장이 (주)빅셀이 지난 5월부터 DC600모델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되었다. (주)빅셀은 서울대학교의 기계공학과 고상근 교수가 고문으로 참여한 벤처기업으로 고교수 자신의 영어학습을 위해 연구하던 중에 자막수신기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가격도 15만원선으로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았고 기존의 TV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막방송에 목말라있던 농아인들은 기능에 관계없이 자막을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서둘러 구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어려움은 있었다. 우선 VTR(비디오테이프 레코더)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VTR은 채널조정이 가능한 신형이어야 한다는 점, 또한 TV와 VTR이 겸용인 제품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한번 걸림돌로 작용하여 생산중단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자막방송 자체에 대한 우려를 갖던 중에 다행스럽게도 70년의 방



청각장애인 방송자막수신기 전달식



송기술을 자랑한다는 KBS영상사업단이 기술력으로 시장에 가세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었다. KBS영상사업단은 KBS의 자회사로 위성방송수신기 등과 같은 방송주변기와 영상 프로그램, 인터넷방송 등을 제작해온 곳으로 방송관련 기술에 있어서는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다. KBS영상사업단이 뒤늦게 지난 9월부터 출시한 KMEN7000K는 우선 사용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둔 것 같다. 안타나선만 쬐으면 별도의 복잡한 설치가 필요 없어 사용이 간편하고 모든 기능을 리모콘으로 작동이 가능할 뿐 아니라, 리모콘이 없더라도 자막수신기에서도 조절이 가능하게 하였고, VTR과 비슷한 외관으로 다른 가전제품(VTR, 위성수신기, 케이블방송 수신기, 오디오 등)과 함께 잘 어울린다. 또한 기존 제품과 달리 별도의 아답터를 사용하지 않고 전원을 프리볼트(110~220V)로 자막수신기에 내장하였다. 가장 돋보이는 장점은 어느 회사의 제품보다 글씨체가 32*32 폰트로 깔끔하게 처리되어 글자를 읽어 내려가기가 좋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위치를 이리저리 옮기지 않고도 기존에 나오는 영상을 방해 없이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전화면하단] 기능이 내장된 것인데 가끔 수화통역이 나오는 캡이나 문자방송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 농아인에게는 필수 기능으로 자리잡을 것 같다. 그 외에 방송국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자막색깔을 구분해서 방송을 해주는데 KBS자막수신기만이 그 색깔을 그대로 구분해서 보여준다. 자신이 원한다면 8가지 글자색과 배경색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KBS영상사업단의 제품은 장점이 많은 제품임에 틀림없다. 다만 옥에 티라면 그 만큼 가격이 좀 비싸다는 점과 농아인에게는 필요없는 기능이긴 하지만 리모콘으로 음성조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음성을 조정할 때는 TV 리모콘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컴퓨터가 있는 농아인이라면 컴퓨터 연결기능을 사용하여 TV에 나오는 멋진 배우의 모습을 프린트 해본다던가 약2시간 가량 저장된 내용을 편집해서 프린트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KBS영상사업단의 KMEN7000K와 거의 동시에 (주)빅셀에서 기능이 향상된 DC800모델을 선보였다. DC600에서 VTR을 연결하여야 사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없애고 KBS영상사업단의 KEMEN7000K와 같은 자체튜너 기능을 내장하고 리모콘을 추가했다. 물론 튜너를 제외한 영상단자와 자막수신기 자체조정기능 등은 가격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인지 모두 뺐다. 리모콘을 너무 작게 만들다보니 잃어버리거나 부러뜨릴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새로 구입하지 않으

면 자막수신기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이유는 수신기에 조정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리모콘에 들어가는 수은전지가 비싸고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음량조절을 리모콘을 통해서 직접할 수 있기 때문에 TV 리모콘과 함께 사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없다. 또한 행수를 1줄부터 10줄까지 늘려볼 수 있다. 다만 10줄까지 늘리면 영상이 뒤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조정할 때 1줄에서 5줄까지 늘렸다가 다시 1줄로 보고 싶으면 열심히 눌러서 10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거꾸로 1줄로 내려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DC600에서 별도의 아답터로 전원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별도의 아답터를 꽂아 사용해야한다. 어쨌든 간단히 자막만 보는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 다만 글씨모양만 좀 더 이쁘게 만들었다면 지루하지 않게 자막을 볼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KBS영상사업단의 KMEN7000K와 가격이 3~4만원 정도 차이가 나므로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빅셀에서는 영어공부를 하는 사람들과 컴퓨터에 연결해 사용할 사람들을 위해 25~30만원선의 각기 다른 다양한 기종을 내놓고 있다. 농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 중에 단어사전 기능은 정말 탁월한 것 같다. 이걸로 영어공부를 위해 구입하려는 사람은 투자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KBS영상사업단에서도 이번 연말쯤에 영어학습자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다니 기대해봐도 좋겠다.

지금까지 살펴 본 제품 이외에도 이번에 (주)신와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농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라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은 느낌이다. 왜냐면 (주)빅셀에서 이미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생산 중단한 VTR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는 농아인에게 설득력이 없을 것 같다. 영어학습 시장이라면 모를까. 앞으로 농아인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지만, 이 글을 읽는 농아인들도 불편한 점이나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더욱 좋은 제품으로 유도하게 되고 우리 농아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게 될 것으로 믿는다.

다음의 표는 현재 농아인들에게 특판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TV자막수신기 두 모델을 중심으로 가능한 객관적으로 철저히 분석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자막수신기를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게재 내용에 대한 문의 및 건의사항, 기타 농아인 관련 각종 정보에 대한 문의: 농아사회정보원 전화 (02-711-6882) / 팩스 (02-712-9530)

주요 세부기능	회사별 모델	KBS영상사업단 (KMEN7000K)	(주)빅셀 (DC800)
한글 폰트	크 기	32*32	16*16
	기 타	글자모양이 미려함	글자모양이 영성함
자막위치 조정	상·하단	○	○
	좌·우측	○	×
	기타기능	전화면 하단·우측	×
자막색상 조정	문자색	8색검정, 빨강, 초록, 노랑, 파랑, 보라, 하늘, 흰색)	1색(흰색)
	바탕색	8색검정, 빨강, 초록, 노랑, 파랑, 보라, 하늘, 흰색)	1색(회색)
	기타기능	색상자동조정, 바탕색 혼합(0~100%)	×
자막언어 선택	한 글	○	○
	영 문	○	○
자막행수 설정	1~3행	○	○
	1~10행	×	○
	기타기능	행올림, 행내림, 연속, 자동	×
리모콘 조정기능	채널조정	○	○
	음량조정	×	○
	기 타	일반AAA전지*2개	수은전지*1개
자막기 본체조정	조정보턴 유·무	○	×
	기 타	보턴으로 모든 메뉴 조정가능	불가능
지나간 자막 기억기능		2시간 분량	200줄
컴퓨터 연결 기능	정지화면	○	×
	저장·전송	○	×
	편 집	○	×
	기 타	필요시 프로그램 추가 제공	DC900이상 모델 구입시 가능
전원 공급		100~200V(free volt) 자막수신기 자체 내장	DC9V 아답터 별도 사용
외관	사이즈	300(W)*62(H)*240(D)	220(W)*33(H)*100(D)
	색 상	검정색	흰색
	기 타	내부 열방출을 위한 통풍구 있음	×
외부출력	RF단자(안테나)	○	○
	영상·오디오 단자	○	×
	RS232 포트 (컴퓨터 연결)	○	×
기타 기능	KBPS 방송시간표 안내기능	매 일주일 분량 자동제공	×
	입·출력변환 기능	미국, 유럽식 전환 가능	×
	화면조정기능	색상·밝기 미세 조정	×
	메뉴 조정	플다운으로 쉽게 조정	조정이 복잡함

TV 자막방송 순서

〈KBS 자막방송 프로그램〉

(2000. 1. 31. 현재)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50	TV 유치원 하나, 둘, 셋						
8:25	아침마당						
9:20							정범구의 시사비평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8:00						사랑의 리퀘스트	
19:35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19:10						나의 사랑 나의 반쪽	
19:35		강력추천 고교캠프					
19:35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20:00						역사스페셜	일요스페셜
20:30	일일연속극 해뜨고 달뜨고						
21:00	KBS뉴스						
21:45			스포츠뉴스			대하드라마 왕과 비	
			환경스페셜				
23:00						토요영화	명화극장

〈MBC 자막방송 프로그램〉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50	뽀뽀뽀						
9:30	MBC 뉴스						
12:10							출발비디오여행
17:10							일요일일요일밤에
18:50							
19:30	21세기위원회	칭찬합시다					
19:50						주말연속극 남의속도 모르고	
20:25	일일연속극 날마다 행복해						
21:00	MBC 뉴스데스크						
21:45					베스트극장	전파견문록	
23:45							일요회화

〈SBS·EBS자막방송 프로그램〉

SBS	매일 저녁 8시	저녁뉴스
EBS	예정프로그램①컴퓨터는 내친구 ②빌 아저씨 과학 이야기 ③세상 보기④호 도우미⑤육아일기⑥직업의 세계⑦대학가 중계	

정보화 캠페인

www.iidc.co.kr



마크셀명 손모양은 농아사회를 의미하며 가운데 등대는 영문 i(Information) 정보를 의미하여 세계의 모든 정보를 농아사회에 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농아사회의 정보화를 선도하는

농아사회정보원

the Information Institute for the Deaf Community

“농아인도 이제 정보를 듣자”

21세기를 준비하는 젊은 생각을 가진 농아인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아사회정보원은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젊은 생각을 가진 농아인의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농아사회정보원은 정보습득의 어려움을 겪는 농아인들에게 정보화 시대를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알리며,健청인들과의 활발한 정보교류를 이루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농아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되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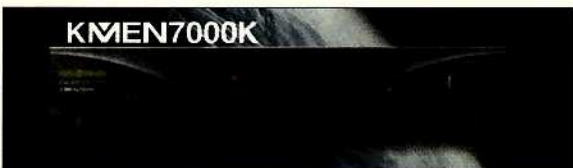
특별할인판매

한글/영문 TV자막수신기

~~₩248,900~~ →

₩170,000

금붕어처럼 입만 벅긋하는 답답한 TV!
이제 똑똑한 TV로 만들어 드립니다.



3월 1일~3월 25일까지 선착순 1000명에 한하여 LG정보통신의 인터넷, 문자통신이 가능한 최신형 모델 i-plus 휴대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별도 구입도 가능함)



특징 ① 깨끗하고 멋진 자막글씨(32x32 font) ② 대화자의 말에 따라 자동으로 변하는 문자색(8가지 색상) ③ 컴퓨터와 연결하면 멋진 화면을 프린트할 수 있는 스틸기능 ④ 리모콘으로 간단하게 조작되는 편리성

농아사회정보원은 언제나 농아인과 함께 합니다.

주요사업 안내

- ▶ 온라인 수어 어학원 운영
- ▶ 수화교육자료 발간(도서, 비디오, CD 등)
- ▶ 농아인을 위한 컴퓨터(통신)교육, 취업정보은행 운영
- ▶ 전문용어(정보통신, 법률, 의료 등)의 수화연구 개발
- ▶ 농아인관련 편의기기(문자단말기, 자막TV수신기 등)판매

전화 (02) 711-6881~2

팩스 (02) 712-9530

에어포스트 013-3300-6882

휴대폰 019-240-6882

E-mail kupdown@iidc.co.kr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22-24